

글로벌 시장 야간 브리핑: 폭풍 전야의 랠리

Global Market Night Briefing:
The Rally Before the Storm

2026년 8월 26일 기준



코스피 6,800선 안착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302.2만 주)가 주도한 반도체 반등 장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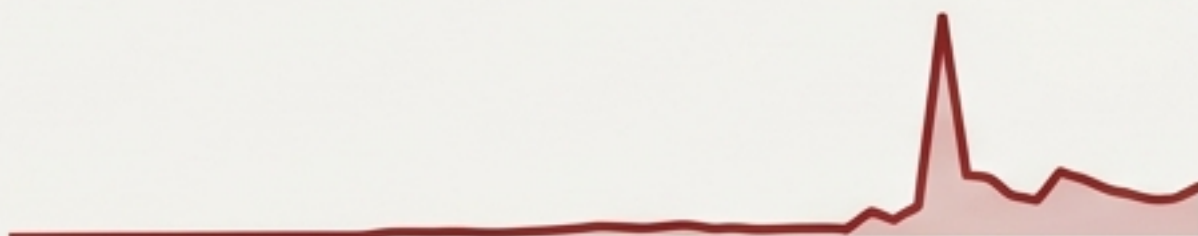
모든 것이 오르는 시장

달러 약세 속 **국채금리, 유가, 금, 비트코인**이 동반 상승하는 거시 경제의 기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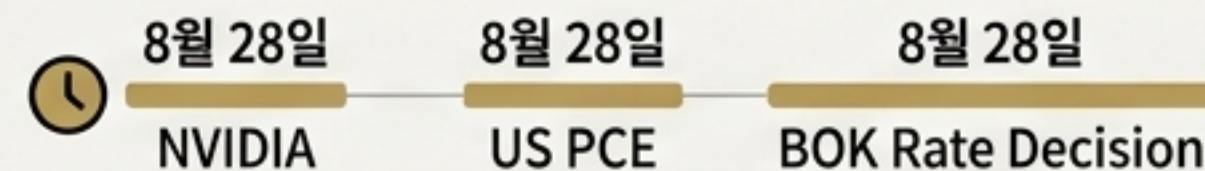
리스크 테이킹의 극단

미국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에 **1.2조 원 풀베팅**. WSJ '한국은 가장 미친 증시'.



카운트다운: 8월 28일

엔비디아 실적, 미국 PCE 물가, 그리고 **한국은행 금통위**(기준금리 결정) 대기 중.





글로벌 공통 상승 동력

중동 긴장 완화에 따른 유가 안정화 기대감과 내일 새벽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선취매 심리가 전 세계 증시를 견인.

“한국, 세계에서 가장 미친 증시”

Wall Street Journal (WSJ) ‘롤러코스피’ 조명

KOSPI: 6,808.21 (+65.47pt, +0.97%) ↑



거래량, 올해 평균의 절반 밑으로 급감

KOSDAQ: 826.87 (-0.28pt, -0.0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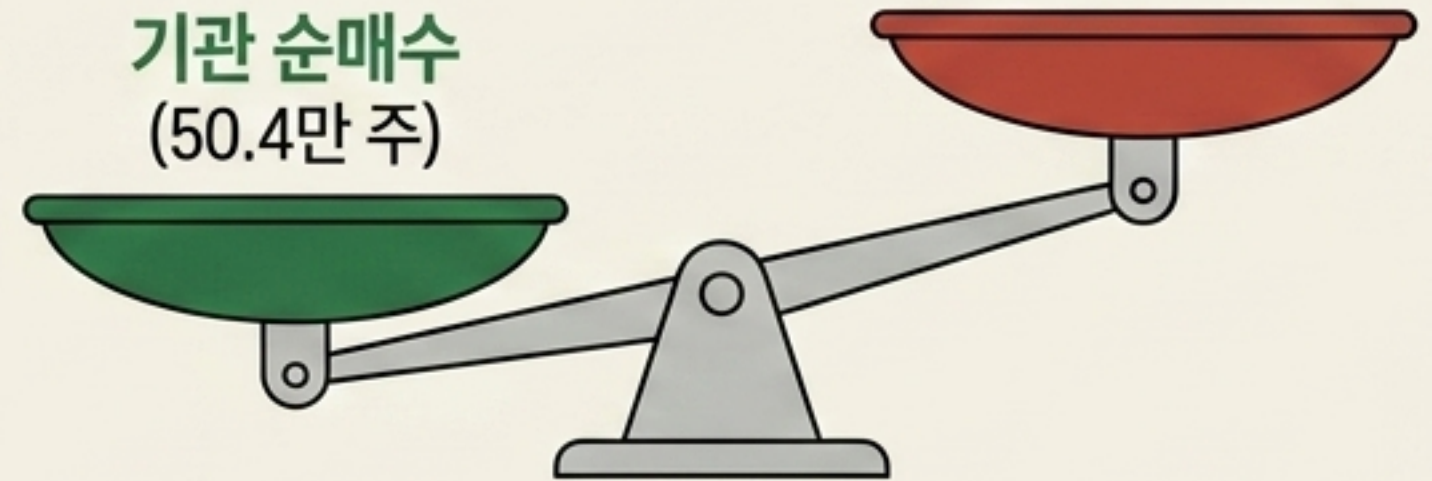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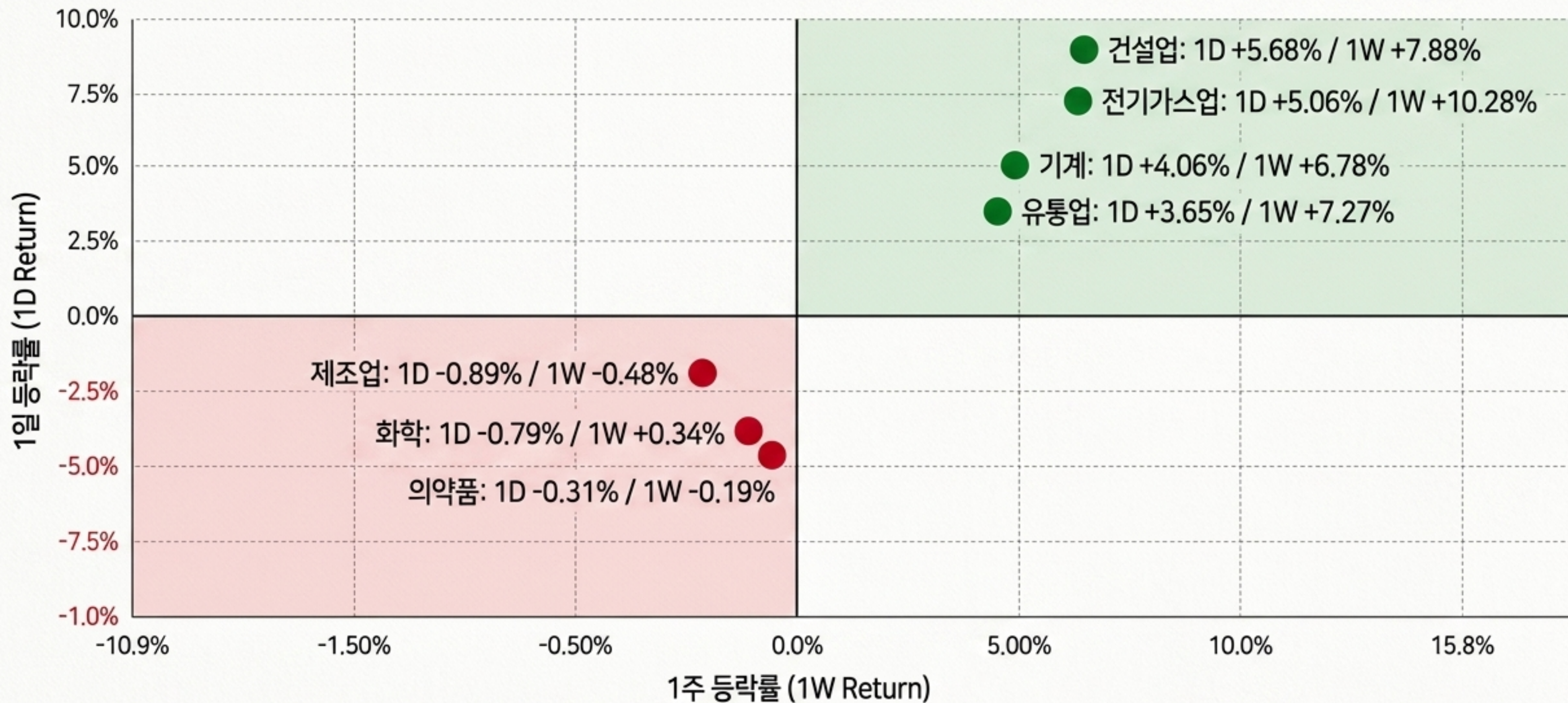
외국인 순매수
(251.8만 주)

+

기관 순매수
(50.4만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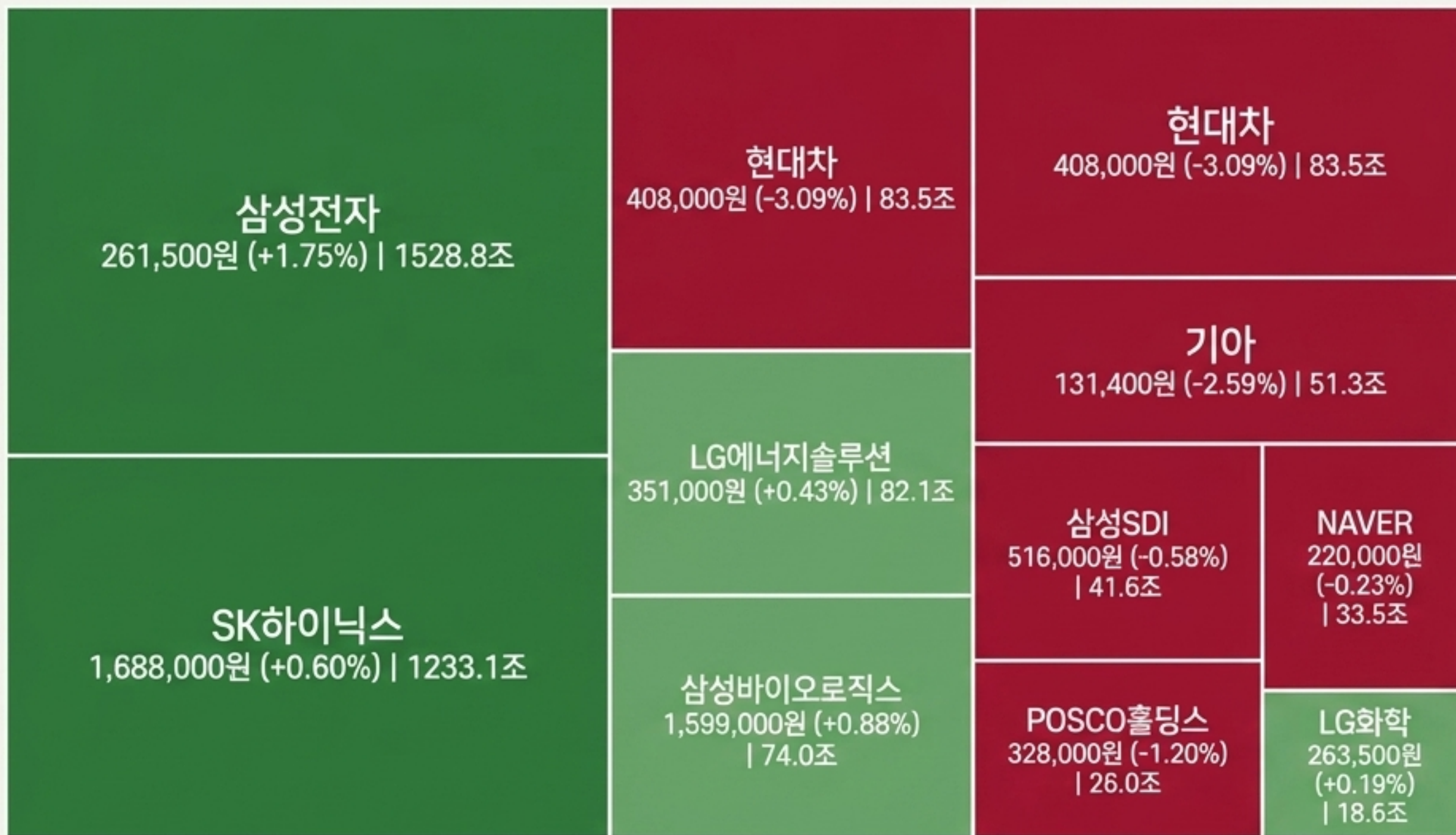
개인 순매도
(486.3만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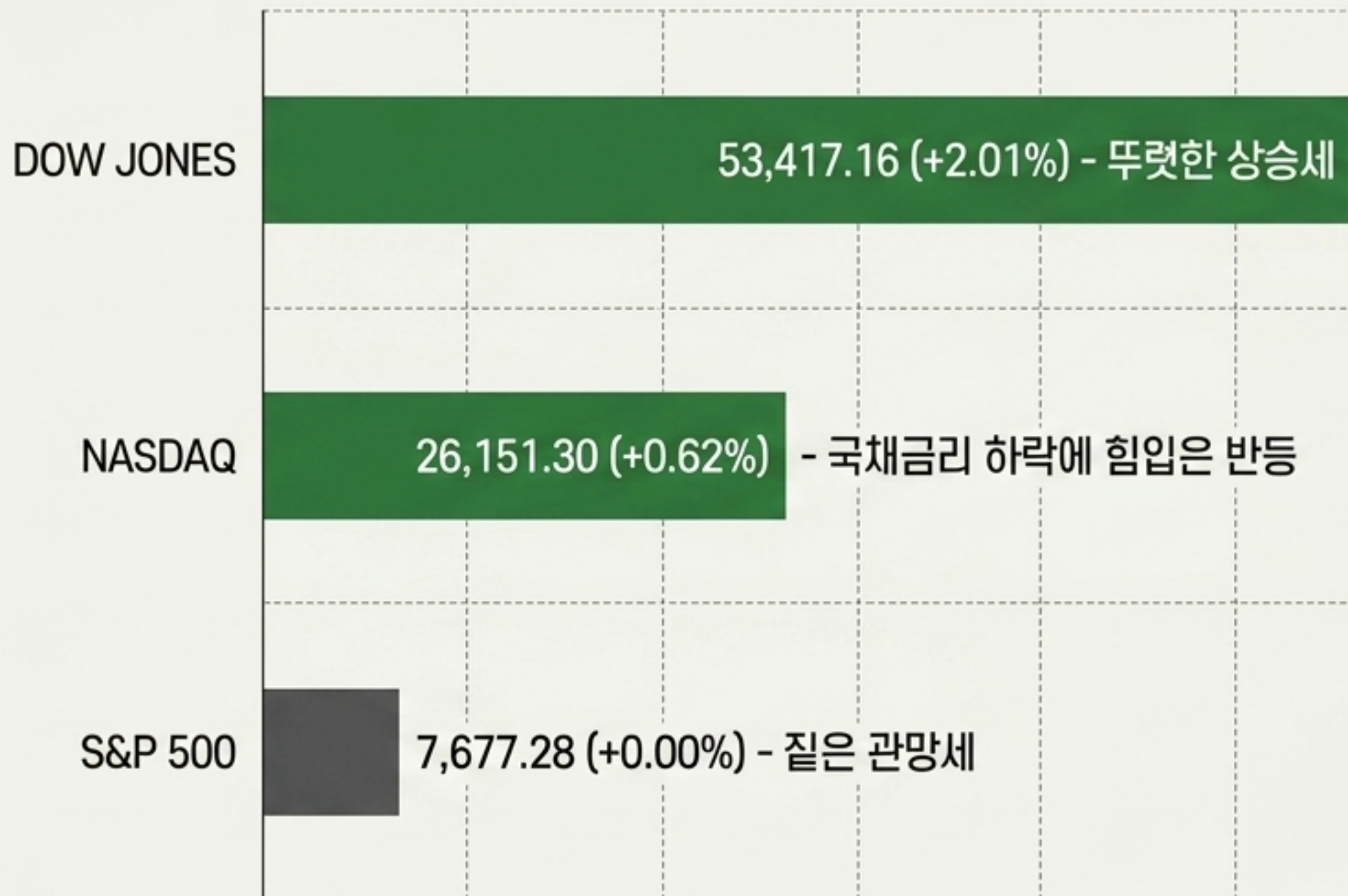




건설·유틸리티 인프라 섹터의 단기 과열 양상 vs. 전통 제조업의 소외 현상 뚜렷

반도체 투톱(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지수 방어 속, 자동차 섹터(현대차, 기아)의 급격한 차익 실현





불개미 본능의 귀환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에
1.2조 원 풀베팅.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극대화된 리스크 테이킹 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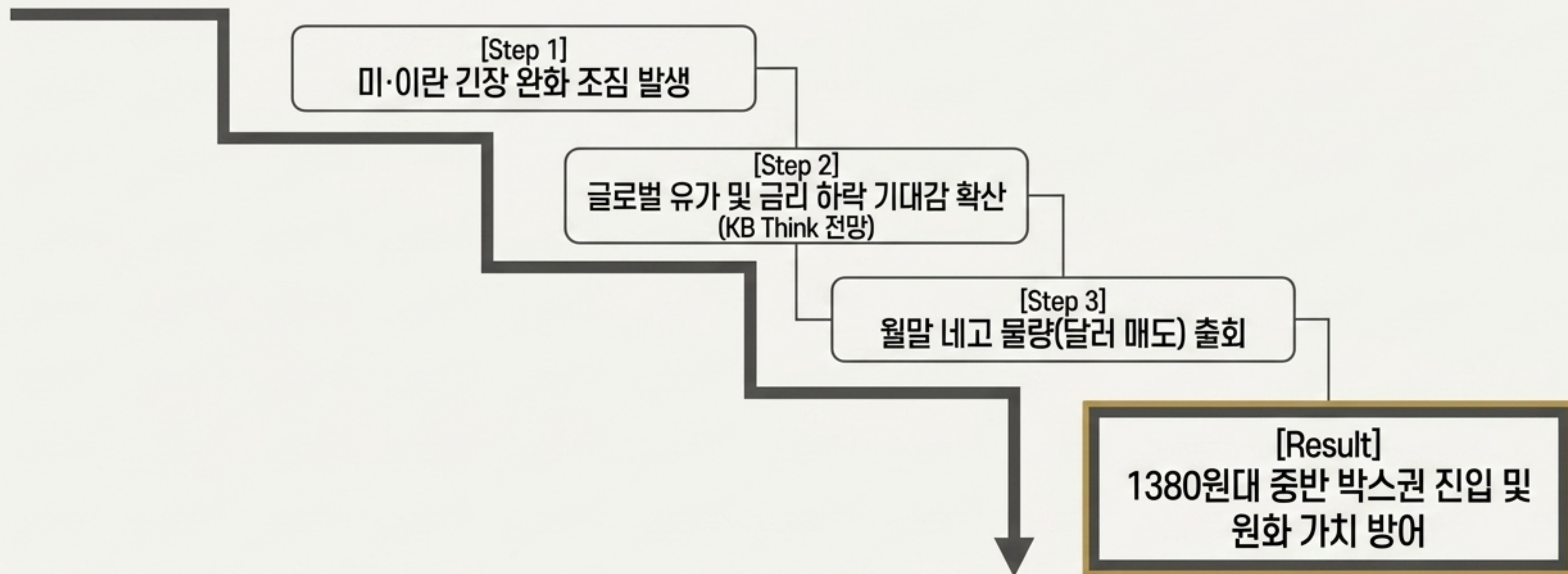
[MARKET_NOTE] 크래프트 하인즈, 9월 14일부로
나스닥에서 뉴욕증권거래소(NYSE)로 상장 이전 예정.

FICC 패러독스: 상충하는 자산(금과 비트코인)이 동시에 랠리를 펼치는 전형적인 폭풍 전야의 헷징(Hedging) 장세**미 국채 10Y (4.637%, +5bp)**FOMC 매파 기조 잔존으로
금리 민감 자산 압력 지속.**금 (\$500, +\$18)**달러 약세와 이벤트 헷징을 위한
안전자산 선호 극대화.**달러 인덱스 약세 (0.5, -0.32)**

유로 강세 및 금리 인하 기대감 선반영

WTI 원유 (\$80.21, +\$2.62)OPEC 감산 연장 기대감이
끌어올린 인플레이션 헷지.**비트코인 (\$67,350, +\$1,240)**ETF 순유입 지속에 따른
극단적 위험자산 랠리 동참.

원/달러 환율 ₩1,382.21 (전일 대비 -5.30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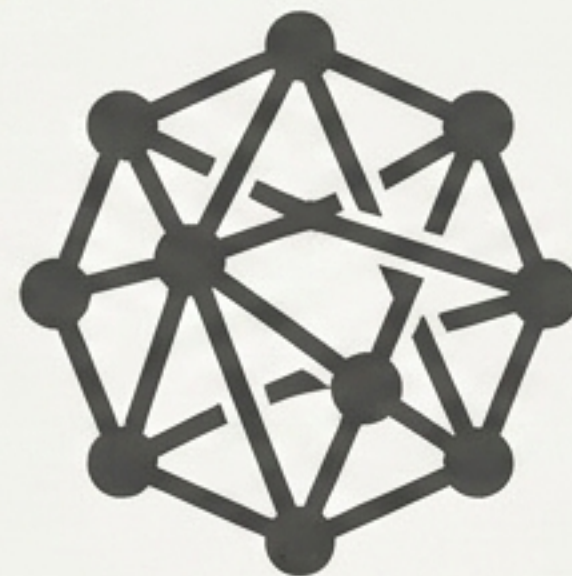


핵심 인사이트: 달러 약세 모멘텀이 원화에는 긍정적으로 작용 중이나,
내일 모레 예정된 한국은행 금통위 결과에 따라 방향성 이탈 가능성 상존.



유럽: 40도 폭염의 나비효과

이례적인 폭염이 유럽 증시 섹터 간 격차를 극단적으로 확대. 승자(냉방, 유틸리티)와 패자(전통 소비재, 농업)를 명확히 가르며 기후 리스크가 실적 변수로 급부상.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로 방산주 동반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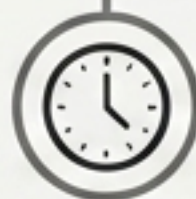
아시아: 글로벌 자본 인프라 확장

美 IBKR - 다올투자증권 전략적 제휴. 양방향 글로벌 투자 플랫폼 구축 완료. 단순한 제휴를 넘어 향후 외국인 투자 자금의 아시아 유입을 가속화할 인프라적 의미 부여.

현재: 8월 26일
(랠리 지속 중)



[대기]
미국 PCE 물가 지표 발표
(인플레이션 향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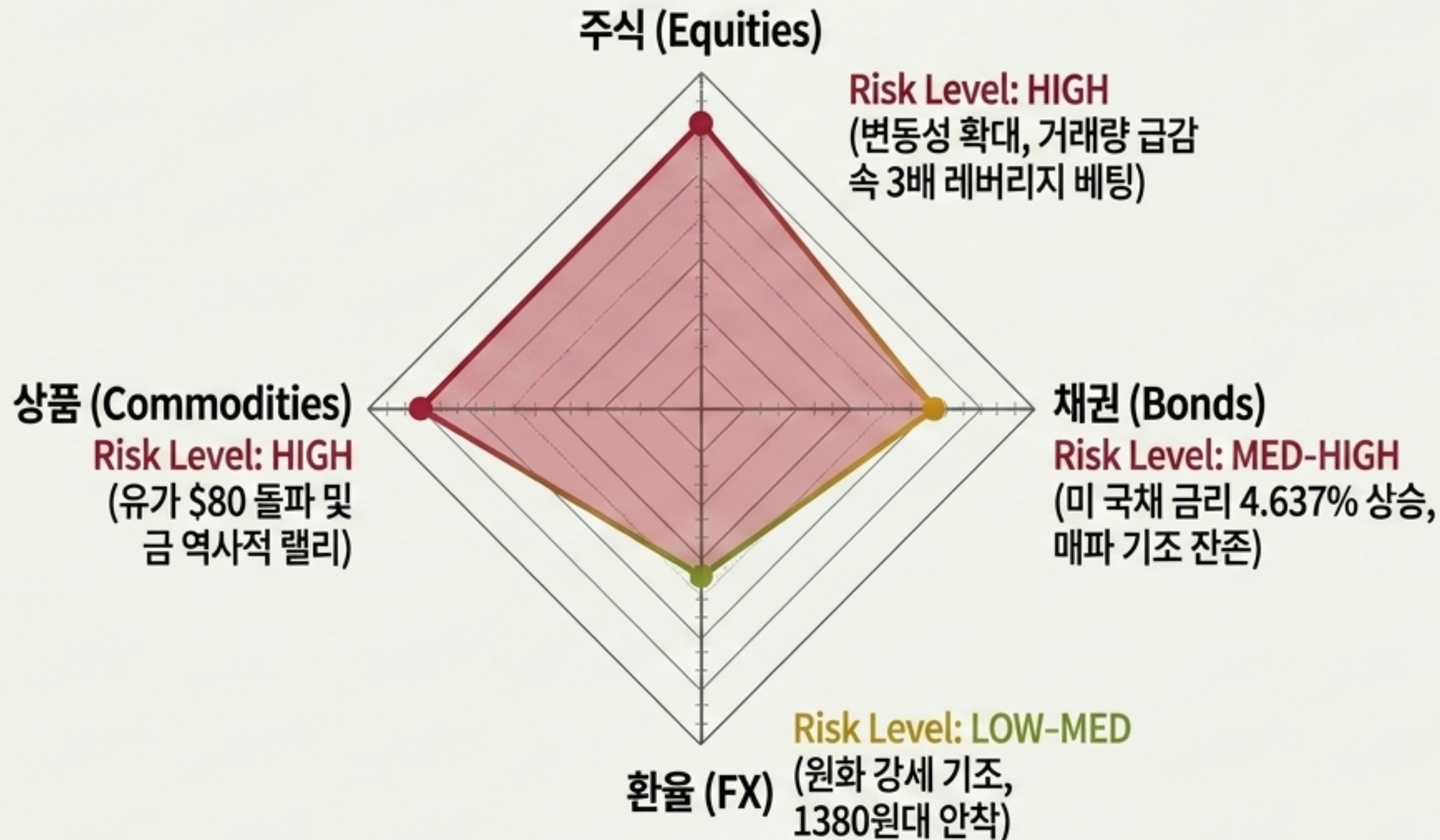
[대기] 엔비디아(Nvidia)
1분기 실적 발표
(글로벌 테크/반도체 랠리의 분수령)

금요일:
8월 28일
10:00 AM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

★★★ 최대 뇌관 - 원/달러 환율 및
채권 시장 리스크 집중 주시.

현재 시장 리스크 레이더 (Risk Radar)



종합 분석

시장은 현재 '금리 인하'를 가격에 반영(달러 약세)하면서도,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충격을 동시에 헷징(금, 원유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테크 주식에 대한 FOMO(비트코인, 반도체 ETF 랠리)가 결합된 극도로 기형적인 폭풍 전야의 장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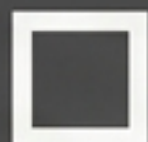
반도체 쏠림 현상 주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 극심한 변동성 예상. 특히 1.2조 원이 몰린 레버리지 ETF 발(發) 반대매매 리스크 대비 및 비중 조절 필요.



달러 약세 지속에 따른 헷징 유지

달러 약세 모멘텀이 꺾이지 않는 한, 현재 진행 중인 '금(Safe)'과 '비트코인(Risk)'의 동반 랠리 트렌드는 유효. 포트폴리오 다변화 유지.



8/28 한은 금통위 변동성 대비

기준금리 결정에 따른 원/달러 환율(1,382.21원 방어선) 변동 및 이에 연동된 외국인 수급 이탈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 준비.

END OF BRIEFING

본 인사이트 리포트는 글로벌 금융 터미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6년 8월 26일 22:02 기준으로 생성되었습니다.

[SYSTEM_LOGOFF]